

# 자동화 서두르면 안된다.

□ 정리/김동진 기자



△맛시모 핀코(Massimo Finco) 사장



△박신환 스파크인터네쇼날 사장

▲한국 방문을 축하드립니다. 양계자동화시설 업체로 파코사는 알려져는 있지만 아직 국내 농장에 설치가 안된 탓인지 궁금해 하는 양계인을 위해 회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핀코 : 파코(FACCO)사는 '61년에 설립되어 이미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미국, 중동, 호주, 일본 등에 진출해 있는 세계 3대 케이지 메이커라 자부하고 있습

니다. 이태리에 본사를 두고 양계관련 자동화시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품만도 20여종에 달할 겁니다.

저희는 조립식계사(냉난방, 환기장치 등), 자동화계사(고상식, 직립식 및 절충식), 급이, 급수, 집란, 사일로, 계분처리시설 등이 주요 생산품인데 이중에도 환기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파크축산이 한국대리점을 개설하

였으므로 양축가들과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코사가 양계관련 기자재를 전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시장 진출을 타 제품보다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그만큼 시장분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핀코 : (웃음...)상품이라

는 것이 도착한 순서대로 우수성이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도 그랬듯이 한국 시장 진출에도 상당한 연구와 검토를 거쳤고 나름대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대리점까지 계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파코사는 이같은 경영방식에 의해 움직여 왔기 때문에 '92년 일본의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같은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느낀점은 한국 양계인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에 쉽게 동요되어 선택을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강조하는 말이지만 기계는 고장도 있을 수 있고, 관리미숙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즉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서비스 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이런 점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무창계사의 보급이 많아졌습

니다. 일부이긴 합니다만 환기문제가 좀더 철저하게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인데 파코사는 부품생산부터 환기제어 등 전부문을 일괄 생산하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핀코: 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즉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원리에 비교한다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추운지방에서부터 열대지방까지 시설을 하면서 환기에 대한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계사의 위치, 형태, 밀도, 온도, 습도 등 다양한 변수가 같은 농장이라도 계사마다 달라져야 할 정도로 정밀분석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환기설계가 되어야지 다른 농장에 가보니까 괜찮다더라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국에서 여러번 무창계사에서 사고가 있었는데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같은 사실들이 자동화를 하려는 양축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한국에서는 직립식이 좋다는, A형이 좋다는

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기종이건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확신이 중요하고 다음은 투자해서 댓가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제품을 시설한 농장들은 적어도 관리미숙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장경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화한 농장이 어쨌든 발전해야지 파코도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한국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벌써 계약이 된 농장이 있기 때문에 최신식 시설을 해 놓고 신뢰를 얻어 한국 양계업이 발전하는 한 파코도 함께 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훌륭한 양계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통역을 맡아 주신 스파크축산 박신환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27